

“조선대 총장 직선제 폐지”

유수택 이사장 “파벌·반목 역기능 ... 연내 추진”

전남대도 총장 직선제 개선 방안 마련 중

유수택 조선대학교 이사장이 “연내에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조선대는 지난 2007년 제13대 총장 선거때 총장 후보들이 제14대 선거부터는 직선제를 지양하고 합리적인 선출 방식을 마련키로 합의한 상태여서 총장 직선제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유수택 이사장은 3일 광주지역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호남지역 대표 사학인 조선대는 수차례 총장선거를 거치면서 구성원끼리 파벌이 생기고, 반목하는 분위기가 만연되는 등 총장 직선제가 대학 발전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임기인 올 12월 안에 직선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또 “조선대 뿐만 아니라 직선제를 유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선거 이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서울지역 상당수 대학들이 직선제를 폐지하고 있는 추세일

뿐만 아니라 조선대 내부에서도 이 같은 여론이 지배적이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구성원간 반목과 대립의 피해는 면화 분위기를 해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면서 “교수가 연구에 매진하는 것이 아니라 총장이 되기 위해 직원들의 애경사를 쫓아다니는 모습은 없애야 한다는 것이 이사진의 공통된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조선대는 2007년 9월 13대 총장 선거에 출마한 6명의 후보들이 선거 직전에 ‘차기 제 14대 총장후보자 선출방법은 직접선거 형태의 선출방식을 가급적 지양하고 직간선혼합형, 간선제, 공모제, 합의추대제 등 다양한 형태의 선출방법을 고려해 2009년 6월 30일까지 대자협에서 마련해 이사회에서 정한다’는 합의문에 동의한 상태다. 총장 후보들의 합의문 내용은 곧바로 ‘조선대학교 총장후보자 선출 규정’부칙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교수평의회와 직원노동

조합·총학생회·총동창회 등으로 구성된 조선대 최고 협의체인 대학자치운영협의회(이하 대자협)는 새로운 총장 선출 방법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임시이사 임기 만료 후 10개월간 정쟁화 투쟁에 이은 임시이사 재파견 등으로 인해 학교가 진통을 겪으면서 총장 직선제 문제를 다루지 못했다.

이 같이 오는 2011년 14대 총장 선거부터는 직선제 대신 대자협이 마련한 합리적인 선출 방안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 이사장의 발언으로 인해 직선제 폐지 논의는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대의 한 교수는 “직선제는 어떤 형태로든 개선돼야 한다”면서 “교수와 직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대는 올 초부터 본격적으로 교수평의회 주관 아래 총장 직선제 개선 방안을 마련중이어서 가까운 시일 내에 개선안이 도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경호기자 chae@kwangju.co.kr

29년만에 가장 긴~ 장마

전남 44일간 이어져 신기록, 태풍에 달려



올 여름 장마가 29년 만에 가장 긴 장마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광주와 완도, 여수 등 전남지역은 지난 6월21일 시작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약한 비가 내려 장마 기간이 무려 44일째 이어졌다.

4일에도 목포와 완도, 진도 등 전남 서해안 지역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돼, 장마 기간은 최소 45일 이상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1980년 남부지방에 46일(6월 16일~7월 31일)간 장마가 지속된 이래 최장 기록이다.

기상청은 1973년부터 장마 기간을 계산한 이후로 이처럼 긴 장마는 1974년(46일)과 1980년(45일) 두 차례밖에 없었다. 올 장마가 예년처럼 7월 중하순에 끝나지 않는 원인은 오호츠크해 고기

압이 비정상적으로 강하게 활동해, 북태평양 고기압의 북상을 막은 데 있다고 기상청은 분석했다.

기상청은 올 장마가 최장 신기록을 세울 가능성은 현재 필리핀 해상에 있는 열대 저압부의 발달 상황에 달렸다고 전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열대 저압부가 태풍이 돼 북상하면 그 진로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는다”며 “장마가 얼마나 오래갈 지는 태풍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한편 8월 중순부터 다음달 초순까지 강우량과 기온은 평년과 대체로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광주·전남지역의 기온은 18~26도, 강우량은 188~353mm로 전망되며, 국지성 호우가 잦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희기자 khh@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43분 해질 19시 33분 달돋이 18시 31분 달질 03시 45분

흐린 여름하늘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서해안지역을 중심으로 한때 비가 온 뒤 개겠다.

광주	흐림	22/29℃
목포	흐리고 가끔 비	23/27℃
여수	흐림	22/25℃
완도	흐리고 가끔 비	22/27℃
구례	흐림	21/29℃
해남	흐리고 가끔 비	22/27℃
장흥	흐림	22/27℃
고흥	흐림	21/26℃
순천	흐림	21/28℃
영광	흐림	22/28℃
진도	흐리고 가끔 비	22/27℃
전주	흐림	21/27℃
남원	흐림	21/28℃
목성도	흐리고 가끔 비	22/26℃

〈오전〉 바다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풍 0.5~0.5m, 북동~동풍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풍 1.0~1.5m, 북동~동풍 1.5~2.5m

〈오후〉 바다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풍 0.5~0.5m, 북동~동풍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풍 1.0~1.5m, 북동~동풍 1.0~2.0m

◇주간날씨
기상내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5(수)	6(목)	7(금)	8(토)	9(일)	10(월)
날씨	☁	☁	☁	☁	☁	☁
최저/최고	23/30	23/30	23/29	23/30	23/31	23/32

벌에 쏘이고 물에 빠지고, 경비행기 추락...

휴가철 각종 사고 속출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과 관광지 등에서 각종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3일 새벽 5시30분께 여주시 삼산면 초도리 의성마을 해안에서 이 마을에 사는 허모(51)씨가 바다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 허씨는 전날 오후 6시께 자신이 갯바위에 내려준 낚시객들을 태우기 위해 혼자 2.7t급 배를 타고 나갔으나, 근처 방파제에서 빈 배만 발견돼 해경과 마을 주민들이 수색을 벌여왔다.

앞서 2일 오후 4시30분엔 해남군 송지면 팡골 전망대 인근에서 김모

(48)씨가 벌에 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김씨는 광주에서 관광차 해남을 찾았다가 ‘팡골 모노레일’ 인근의 오르막길을 걷던 중 벌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오후 1시30분엔 충북 단양군 단양읍 벌곡리 남향강에서 광주에 사는 이모(35)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는 지난 1일 오후 5시20분께 이 지점에 추락한 초경량항공기(ULM)의 조종사로, 사고 20시간여 만에 시신이 인양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손바닥 식중독균 검사

3일 광주시 북구청사 1층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센터에서 열린 ‘청소년 식품안전 체험교실’에 참가한 광주의 한 중학교 학생 30명이 강사의 지도 아래 ‘손바닥 식중독균 검사’ 교육을 받고 있다. 북구청이 주관한 체험교실은 4일까지 진행된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젊음이 있는 대학!!

광신대학교

남여대학원: 학부 605-1114 / 대학원 605-1115

곡성군 모 사회 단체

보조금 유용 의혹 수사

곡성군으로부터 매년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모 단체가 보조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가 나섰다.

곡성군 A단체 간부 K씨는 3일 “곡성군으로부터 매년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A단체가 보조금을 유

용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K씨는 “A단체는 2007년 곡성군으로부터 자원봉사활동비 500만원을 지원받아서 40만원 가량만 지출했고, 김장김치활동비 1천750만원도 남은 돈을 반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2007년에 지원된 자원봉사활동 보조금 500만원은 전액이 영수증 처리돼서 법적으로 자기가 없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

무인출발 백두산 전세기

백두산 북파+용정+도문관광 4일(토) 8월15일 599,000원

백두산 전세기 직행여행센터 TEL: 02-945-9850-9855 FAX: 02-945-9850-9857

아이얼리시아

다들 보았을 것 같아서 2009년 8월 1일

아이얼리시아

고급의 메뉴, 건강한 맛, 믿겨있는 서비스

671-1198